

인사말

존경하는 성인간호학회 회원여러분께



수줍은 연두빛 새순을 틔웠던 수목의 푸름이 짙어져 방금이라도 짙은 초록 물을 툭! 하고 떨어뜨릴 것 같고, 날은 또 어찌나 더운지 염천(炎天)이라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불꽃을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0년의 영광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미래 40년의 새로운 꿈을 향해 이룩한 우리 성인간호학회의 푸르른 비행과 국내 간호계의 중심에서 떨쳐 일어나 세계 간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우리 학회의 뜨거운 열정은 이미 여름철 수목의 푸르름과 염천의 뜨거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인간호학회 회장을 맡고서 저는 마음에 세 가지 소망을 품었습니다.

먼저 성인간호학회 회원 한분 한분에게 성인간호학회의 영광과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SCOPUS 등재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성인간호학회지가 SCI 등의 저명국제색인 DB에 추가로 등재될 수 있도록 발전의 속도를 더하겠다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변화와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대내외적인 도전에 대처할 지혜를 마련하는 일에 학회가 적극적인 변화촉진자·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망이야말로 제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노력해야 할 목표라 여겨 지난 40년 동안 달라진 회원명부를 재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반년간 회원명부에 있는 회원들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 전화번호가 이미 바뀌거나 없는 전화번호가 되어 있기도 했고, 때로는 몇 차례 연락을 드렸음에도 전화를 받아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신 회원들께는 현재 소속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확인했고, 직장을 옮겼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었는데 학회에 알려주시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들의 경우, 이전 직장에 또는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지는 또 다른 성인간호학회 회원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열 번 가까이 전화를 드리고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회원의 연락처를 우연히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다른 회원의 제보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1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전화를 건 횟수도 수천 통이 훌쩍 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성인간호학회에서 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왜 이제야 연락을 하느냐

는 매운 말씀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일차 재정비된 성인간호학회 회원명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소수의 회원들이 계시지만, 무엇이든 성인간호학회의 기쁨과 고민을 학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나누어가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니 마치 모든 학회회원님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6월에는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한양대학교 HIT에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인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세 번째 소망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다듬고 또 다듬고, 좀 더 훌륭한 연자들을 모시고자 사방으로 발품을 팔았고, 학술대회 논문집에 들어갈 원고의 한자 한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보다 많은 회원들을 춘계학술대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날, 300명 가까운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간호사 국가시험제도의 변화와 간호교육인증평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간호학계와 임상간호실무현장의 전문가들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뜨거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했던 학회회원들의 논문발표 역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세계 간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학회의 학술적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임기의 4분의 1 지점을 막 지나는 제 어깨는 아직도 무겁지만 회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혈관을 통해 공급되기 시작한 새 에너지가 제 발걸음을 이전보다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 만났던 모든 학회회원들의 뜨거운 열망과 지지가 제 등 뒤에서 훈훈히 저를 밀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인간호학회 회원여러분, 앞으로 제게 남은 길도 세 가지 소망을 늘 기억하며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전진하고자 합니다. 걷는 걸음마다 성인간호학회의 발전과 성인간호학회원의 염원, 그리고 학회회원 모두의 기대를 담고 가겠습니다.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 여름에...

성인간호학회 회장 **김분한**